

차별화된 원스톱 라이프 제공

한화건설 '익산 부송 꿈에그린' 건본주택 내일 오픈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5일,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핵심 입지에 위치한 익산 부송 꿈에그린의 건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4개 동 전용면적 59~135㎡, 총 626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 206가구 ▲74㎡ 140가구 ▲84㎡ 276가구 ▲135㎡ 47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수요자에게 선호도 높은 전용 85㎡ 이하 중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익산에서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주상복합단지일 뿐 아니라, 지역 최고층(38층)이라는 상징성을 갖춰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주거공간과 바로 연결되어 1~2층에 위치한 상업시설을 통해 입주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원스톱 라이프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업시설은 총 계약면적 1만1500㎡(1층 약 6700㎡, 2층 약 4800㎡)으로 약 130개의 점포 입점이 계획되어 있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췄다. 우선 주변 교통 여건이 좋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익산 도심에 가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핵심 입지에 위치한 익산 부송 꿈에그린의 건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로지락은 관문도로인 무왕로가 위치해 있어 이를 통해 익산역, 익산 시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마동, 중앙동 남중동 신동 등 구도심 권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와 자동차로 20분 거리 이내에는 익산고속터미널을 비롯해 KTX와 SRT가 정차하는 익산역도 있어 광역교통망 이용도 수월하다. 또한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익산 내 주요 업무지역으로 출퇴근

이 쉽다.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는 133만6,000㎡ 규모로 현재 자동차부품·전기·전자·조립금속·화학 등 211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330만9,000㎡ 규모로 현재 자동차부품·기계·조립·전기·전자·화학 등 18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익산시 신 주거중심인 부송·어양동 생활권에 있어 주변 생활·환경 및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

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IG 베스트샵, CGV가 단지와 직경 1.5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어양초, 공동초, 부천초, 어양중, 영등중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부송공원, 두레공원, 익산시민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브랜드 복합단지의 명성에 걸맞게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전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했으며, 보행과 차량동선을 분리해 안정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 다양한 테마조경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커뮤니티시설로서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경로당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화건설 튼튼한 분양소장은 '익산시는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지만 한동안 신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규 아파트의 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 입지, 상품성의 3박자를 갖춘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지역산업 체질 개선 · 차세대 성장 동력 기반 구축

군산시, IT융복합 기반 부품 · 소재산업 등 신산업 육성

군산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 선점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지역산업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4차 산업혁명 및 경제트렌드에 대한 정보공유와 관련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IT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용차 자율주행, 스마트 농생명 등 주력산업을 발판으로 한 신산업 육성과 차세대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아차전지 등 IT기반 부품 소재산업 유치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ICT 관련 코딩, 3D프린팅과 같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체험 및 교육시설 조성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각종 행사 유치 총력

군산시는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실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군산시에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숙박 장소와 식당 안내 등 행사진행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추진 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는 각종 워크숍, 포럼, 박람회 등 41개

행사가 군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들 행사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일반인 등 18만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지역 상권을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군산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들 행사를 통해 군산을 방문한 참석자들이 재차 군산을 방문해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청렴도 향상 부서별 대책보고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3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갖고 고강도 청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시정목표 구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8일 오후 4시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철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렴도 향상 부서별 대책 보고회는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돼 청렴한 익산시 공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현율 익산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보고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외 49개 부서에서 청렴캠페인, 청렴계단 오르기, 청렴달리기 사용, 청렴 자율 저금통, 고객 소리함, 청렴 독서 릴레이, 청렴스핀제, 청렴 비망화면, 이달의 청렴친절왕 선정 등 다양한 청렴시책이 발표됐다.

시는 발굴된 시책들은 꾸준히 추진하고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 및 관행적 부당한 행위들을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농업인 소득향상 · 지역농업 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본격 추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8월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통과하고 12월 본예산에 편성하여 총 24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2018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추진에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참여의사, 희망가공품목, 운영중점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홍보하여 농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공품목·장비선정 및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357명의 농업인 교육생, 품목별연구회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면 가공제품을 생산해 보겠다(52%)'고 답하였으며, '음료·즙(22%)', '분말(22%)' 제품을 가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다품목 소량생산 가공장비를 설치해야 한다(82%)고 답하였으며,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공창업 프로그램 운영(32%)'과 '생산제품판매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판로개척(28%)'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취득 작업을 목표

로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저온저장고를 갖춘 예정이며 설문조사결과와 식품소비트렌드를 감안하여 4월 가공장비를 확정 할 계획이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공동 가공 및 가공창업교육을 통한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까지 건축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7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평소 가공창업에 꿈이 있어도 초·기저부문에 대한 부담과 창업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가공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주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선정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삼성 꿈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2018 배움터 교육지원사업(‘과학·IT’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8년 연속 선정으로 새만금창의융합센터는 명실공히 군산지역 교육복지사업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새만금창의융합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중학생 31명에게 1년간 총 92회의 과학·IT 전문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유수창 센터장(군산대 화학과 교수)은 "과학·IT 창의융합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공공건물 ·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가입

익산시는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 발생 시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자재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 부서가 시설

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매년 늘어가는 공공시설물의 공제등록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영조물배상 및 재해 복구정기공제 등록을 추진하고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행복도시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